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의 특성과 의의

정성권

단국대학교 (전)초빙교수, 미술사 전공

jsk0829@hanmail.net

- I. 머리말
 - II. 봉황산 미륵삼불의 위치와 조성배경
 - III. 봉황산 미륵삼불의 양식적 특징과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삼척 시내 동쪽에는 봉황산이 있다. 봉황산은 해발 149m의 산으로 동서 길이가 약 1.1km 정도 되는 산이다. 봉황산 남쪽에는 태백시 백병산에서 발원한 오십천이 흐르고 있다. 봉황산을 지나 동해로 흘러드는 오십천의 수로는 본래 봉황산의 서쪽과 남쪽을 휘감아 돌아 동해로 흘렀다. 지금은 1970년 수로 변경공사가 완공되어 봉황산의 남쪽으로만 오십천이 흐르고 있다. 봉황산은 오십천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해발 고도가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높은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는 험준한 산이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봉황산을 호악(虎岳)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¹

봉황산의 서쪽 끝 산줄기에는 현재 삼척 사람들에 의해 '미륵삼불'이라 일컬어지는 석상 3기가 있다.² 봉황산 미륵삼불은 3기 모두 좌상이다. 이 석상은 괴체적인 신체와 무덤 앞 석상을 닮은 얼굴 모습, 간략한 신체 표현 등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토속적인 느낌의 작품이며 소박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조각수법이 뛰어난 작품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석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한 주체와 조성시기, 조성 배경 등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삼척은 미수 허목(1595-1682)에 의해 작성된 『척주지(陟州志)』, 김구혁(1798-1859)이 편찬한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척주절의록(陟州節義錄)』, 김

1 金宗彦, 『陟州誌』 권1, 府內條.

2 봉황산 미륵삼불은 삼척부사 李奎憲이 처음 조성하였을 때 '石人'으로 불리웠다(金九燮,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李奎憲). 1916년 심의승이 편찬한 『삼척군지』에 '돌미륵 삼좌'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규현이 건립한 석인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경부터는 미륵으로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글의 전개에 맞게 미륵삼불과 석인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종언(1818-1888)의 『척주지(陟州誌)』 등이 간행된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읍지가 남아 있어 석상이 조성된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기존 미술사에서는 조각 작품을 연구할 때 주로 양식과 형식을 분석하여 작품의 조성시기를 파악하고 미술사적 의의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예술적인 기교나 작품성이 뛰어난 조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조각 작품들이 알려주지 못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1차 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온 석조불상과 석상조각의 문화적 전통이 조선후기까지 어떻게 계승되고 전개되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의 현상과 특징을 확인하고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한 이규헌(李奎憲)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봉황산 미륵삼불의 미술사적 의의 또한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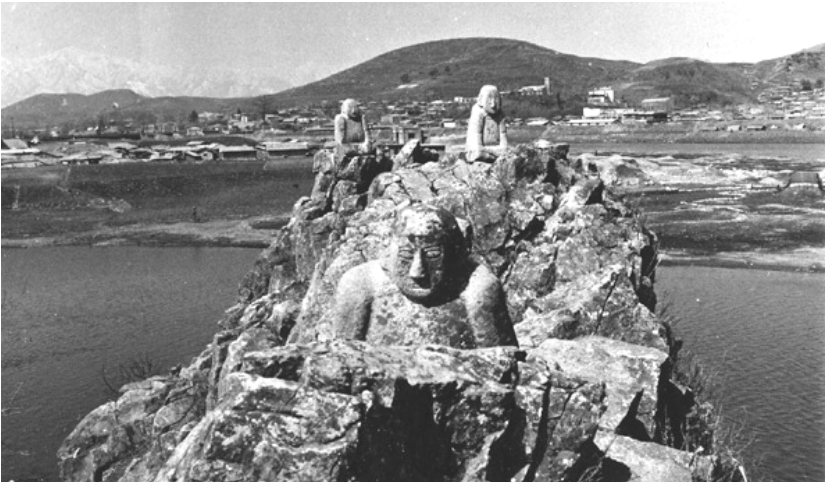
II. 봉황산 미륵삼불의 위치와 조성배경

1. 미륵삼불의 위치

봉황산 미륵삼불은 봉황산에서 흘러내린 암맥이 오십천과 만나 단애를 이루었던 정상부에 세워져있다. 미륵삼불이 세워진 단애 주변은 현재 복도가 되어 있어 도로에서 미륵불까지의 높이는 5-6m 정도로 높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오십천이 단애의 서쪽을 흘렀을 당시 오십천 수면에서 미륵불까지의 높이는 12-13m에 이를 정도로 미륵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에 자리잡고 있었다.(도1, 2)



도1- 오십천에서 바라본 봉황산 미륵삼불(1960년대, © 삼척시립박물관)



도2- 봉황산 미륵삼불과 오십천(1960년대, © 삼척시립박물관)

미륵삼불이 현재의 자리에 조성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십천의 지리적 변화와 더불어 봉황산과 삼척읍성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십천은 삼척의 젖줄이라 할 정도로 삼척 사람들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18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지도를 보면 오십천은 죽서루 밑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현재의 삼척문화예술회관 뒤편 남산 절벽에 부딪쳐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흘렀다. 북쪽으로 흘렀던 오십천 물줄기는 현재의 오십천 북쪽 남양동 주변을 넓게 휘돌아 남쪽으로 흘러 봉황산 미륵삼불



도3-봉황산 미륵삼불 전경



도4-1918년 일제강점기 간행 지도, 삼척과 오십천

아래에 봉황지(鳳凰池)라 불리는 깊은 못을 만든 후 지금의 오십천교 동쪽에
서 방향을 바꿔 동해 바다로 흘러갔다.(도2, 4)

현재의 삼척시내를 크게 돌아 흘러갔던 오십천은 1970년 완공된 남산절
단수로변경공사를 통해 수로가 삼척 시내를 돌지 않고 바로 동해로 흐르게
하였다.³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성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로가 변경되
기 이전의 오십천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삼척시지』에는 현재의
삼척 경찰서 앞을 지나 봉황산 미륵삼불 근처에서 큰 못을 이루는 오십천과
미륵삼불의 조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십천은 미륵삼불 앞쪽에서 큰 못을 이루었다.) 이 못을 봉황지라 하고
(미륵삼불 주변의) 이 험살곳은 절벽을 호악이라 하며, 이 호악 서쪽으로
낮은 산줄기가 뻗어내려 절벽을 이뤘는데 이곳을 ‘미륵바위’라고 한다. ‘미륵
바위’라 함은 이곳이 삼척향교의 안산(案山)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험악하여
요사스러운 기운이 일어난다 하여 1835년 부사 이규현이 미륵불 세 개를
만들어 봉황산 위에 설치하였던 것을 그 후 1857년에 주민들이 이곳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미륵바위’라 하며 지금도 돌미륵 삼불이 나란히 앉아 있어
봉황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펍 인상 깊다.⁴

시지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삼불이 놓여 있는 암맥은 미륵바위라 불린다.
(도1, 2, 5) 오십천이 흐를 때의 미륵바위 지도나 사진 등을 보면 미륵바위는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봉황산에서 서쪽으로 유독 튀어나와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삼불과 관련된 삼척의 구비전승에서는 미륵바위의 형태를
코끼리 코로 묘사하였으며 봉황산을 코끼리 산으로 비유한 설화가 전해온

3 오십천은 1962-1970년 시행된 남산절단수로변경공사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三陟市, 『三陟市誌』(삼척시청, 1997), 1,366쪽 참조.

4 三陟市(1997), 위의 책, 1,366쪽.



도5- 현재(2021년)의 미륵삼불 위치와 주변 경관

다.⁵(도1, 5)

미륵삼불은 김구혁(1798-1859)이 편찬한 『척주선생안』의 기록에 따르면 1835년부터 1839년까지 삼척부사를 역임한 이규현이 조성한 것이다.⁶ 이 기록에 따르면 미륵삼불은 처음 조성되었을 때 현재의 미륵바위가 아니라 봉황산 정상부인 봉황대에 건립되었다. 봉황산에 건립되었던 미륵삼불이 현재의 미륵바위에 이전된 것은 1857년(철종 8)이다. 봉황산에서 현재의

5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군, 『삼척군지』(삼척군청, 1984), 357쪽. “삼척읍에 봉황산이 있다. 이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꼭 코끼리 같이 생겨 일명 코끼리 산이라고도 한다. 이 산에는 미륵모양의 돌부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다친 병사들이 이곳으로 왔었는데, 이들은 너무 지루하여 흥미있는 일을 찾다가 미륵을 강에 속에 집어넣었다. 이 후 날이 가물게 되어 재앙이 찾아오자 마을 촌장이 선한 사람 50명을 뽑아 미륵을 물속에 건져내어 코끼리산에 다시 안치시켰다.” 이 설화는 사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화 속에 나오는 전쟁은 6.25전쟁이며 석상을 물속에 떨어뜨린 군인은 미군이다. 1951년 미군이 석상을 물속에 떨어뜨렸으며 삼척사람들이 진정을 하자 미군이 석상을 물에서 꺼내 원래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 이같은 사실은 1963년 편찬된 삼척지역의 종합지리지인 『眞珠誌』 鳳凰臺 항목에 나와있다(『眞珠誌』 鳳凰臺, “鳳凰臺在鳳凰山上下有石人三坐 辛卯美軍墮于潭中 邑人陳情美軍還立故處”).

6 金九琳,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李奎憲, “立鳳凰臺石人三像以御衝氣”

미륵바위로 미륵삼불을 옮긴 기록은 김종언(1818-1888)의 『척주지』에 나온다.⁷ 『척주지』의 기록에 따르면 마을사람들이 미륵삼불을 지금의 자리로 옮긴 이유는 읍터의 살기(殺氣)를 누르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규현이 처음에 미륵삼불을 조성한 이유는 『척주선생안』의 기록에 따르면 기운이 충돌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되어있다.

1857년 마을사람들이 읍터의 살기를 누르기 위해 미륵삼불을 미륵바위로 옮긴 이유는 봉황산과 삼척읍성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삼척읍성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절요』에서 처음 확인된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정종은 947년(정종 2) 대광 박수문을 보내어 덕창진에 성을 쌓았고 서경의 왕성과 철웅(함남 영흥)·박릉(평북 박천)·삼척·통덕(평남 순천) 등에 성을 쌓았다.⁸ 조선시대 삼척읍성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확인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삼척읍성은 토성이며 그 둘레가 540보라 기록되어 있다.⁹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읍성은 삼면이 석성이고 둘레가 2,054척, 높이가 4척이며 서편 성벽 331척은 자연절벽을 이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삼척읍성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의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과 읍성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¹¹ 삼척읍성은 현재 성벽이 남아 있는 구간이 있으며 읍성 성벽 추정 구간을 연결하면 (도6)과 같은 읍성의 범위가 설정된다. 삼척읍성의 서남쪽 구간은 죽서루 아래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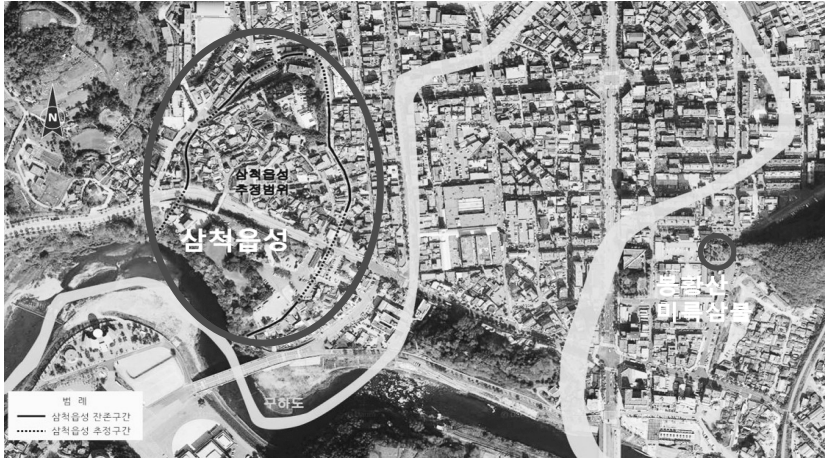
7 金宗彦 『陟州誌』 권1, 府內條, “李侯奎憲爲三石人立于虎岳之上 今上(哲宗) 丁巳(1857) 邑人移其南 以鎮邑基殺氣”

8 『高麗史節要』 권2, 定宗文明大王, 丁未 2年, “春遣大匡朴守文 城德昌鎮 又築西京王城及鐵 龜博陵三陟通德等城通德等城”

9 『世宗實錄』 권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都護府, “邑土城 周回五百四十步”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三陟都護府, “府城 三面石築 周二千五百四十四尺 西絕壁 周四百三十一尺 有門”

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三陟都護府 官衙 遺蹟』(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5), 429-435쪽.



도6-삼척읍성 잔존현황과 수로 변경 전 오십천 및 봉황산 미륵삼불 위치¹³

절벽으로 이루어졌다. 삼척읍성의 북쪽은 성내동 성당 일대로 비정된다.

삼척읍성 서쪽에는 인접하여 갈야산이 있다. 갈야산 동편에는 삼척읍성과 인접하여 실직군왕릉이 있다. 갈야산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 상에는 약 155m 정도의 토성벽이 남아있다. 갈야산에 있는 성은 갈야산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산성은 신라의 삼척 장악 이전에 삼척의 토착세력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동지(關東誌)』에는 “갈야산고성 재부북진산 고실직씨허운(葛夜山古城 在府北鎭山 古悉直氏墟云)”이라 하여 삼척의 토착세력인 실직씨의 유허(遺墟)라고 하고 있다. 토성 기저부에서 신라고분이 발견된 것은 아마도 신라에 의한 개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²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갈야산 일대를 포함한 삼척읍성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삼척 읍치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삼척 읍인들은 읍터의 살기를 누르기 위해 미륵삼불을 1857년 현재의

12 유재춘, 「삼척 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와 동해』 2(한국이사부학회, 2010), 48쪽.

13 강원고고문화연구원(2015), 앞의 책 〈사진·부록〉, 425쪽 사진15 전재.

미륵바위로 옮겼다. 1857년 삼척 사람들이 봉황대에 있었던 미륵삼불을 미륵바위로 옮긴 것은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산천비보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륵바위는 봉황산과 연결되어 있으나 코끼리의 코처럼 미륵바위 부분만 유독 서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도5) 튀어나온 미륵바위는 삼척읍성 동문을 바로 향하고 있다. 동문으로 나오면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읍성 동문을 나오는 사람들은 튀어나온 미륵바위를 바로 볼 수 있다. 봉황산에서 서쪽으로 좁고 길게 뻗은 바위는 삼척읍성의 동쪽 중앙을 찌르듯이 뻗어 있으며 이러한 지세의 모양을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척읍성은 갈야산의 동쪽 하단 부분에 조성되었다. 삼척읍성과 미륵바위 사이에는 오십천이 휘돌아 만들어진 대규모의 모래사장이 있었다. 삼척읍성과 미륵바위 사이에 형성된 모래사장은 읍성과 바위보다 지대가 낮아 읍성에서는 미륵바위를 바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삼척읍성의 사람들은 읍성을 향해 날카롭게 튀어나온 바위의 지세를 항상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도7)



도7-삼척읍성에서 바라본 봉황산과 미륵바위

봉황산 미륵삼불을 현재의 미륵바위로 옮긴 해는 1857년이며 이 해의 삼척부사는 조병문(趙秉文)이었다. 조병문은 1856년 정월에 서산으로부터 삼척으로 부임하였으며 1857년 12월 15일에 맹산군 현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척주선생안』을 살펴보면 19세기 들어와 조병문의 재임기간까지 삼척 부사를 역임한 사람들은 총 20명이다. 1799년 삼척부사에 부임하여 1804년 이직한 부사 이수빈부터 조병문까지 20명의 부사의 기록을 『척주선생안』을 통하여 살펴보면 주목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척주선생안』은 조선후기 김구혁이 1369년(공민왕 18)부터 1904년(광무 8)까지 삼척부에 재임한 관리 명단과 이력을 정리한 책이다.

『척주선생안』에 기재된 19세기 전반부의 삼척부사 20명에 대한 평가는 그 업적에 비례하여 서술 분량이 증가한다. 20명 중 대부분의 부사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한자 100여자 미만이며 보통 20-30자 정도의 간략한 소개로 그쳤다. 이에 반해 미륵삼불을 건립한 이규현의 경우 학교흥기, 유생교육, 부세경감, 수리시설 확충, 미륵삼불 조성, 건축물 중수, 화재예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규현에 대한 기록은 323자에 달하고 있어 19세기 전반기 삼척부사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 재임한 삼척부사 중 이규현 다음으로 많은 글자 수를 보여주는 부사는 미륵삼불을 미륵바위로 옮겼을 때 재임한 부사 조병문이다. 조병문에 대한 기록은 민폐제거, 부세경감, 판결공평 등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글자수는 158자에 이른다. 이규현을 기록한 글자수에 비해 1/2 정도의 분량이지만 20-30여자 정도에 그친 다른 삼척부사에 비하면 많은 내용이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척주선생안』을 간행한 김구혁은 1798년 출생하여 1859년 사망한 인물이다. 『척주선생안』의 기록 중 19세기 전반기의 기록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삼척부사의 인물평이기에 다른 시기에 비해 역사적 사실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륵삼불을 조성한 이규현과 미륵삼불을 미륵바위로 옮긴 시기 삼척에 재임한 조병문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삼척부사들보다 우호적이다. 이는 이들의 업적이 다른 부사들에 비해 뛰어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미륵삼불의 의미와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척주선생안』에 따르면 이규현은 “성품이 본디 과묵하고 자중하여 자애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밝히고 있다. 조병문의 경우는 “지닌 마음이 저울같이 공평하고 [...] 마을의 병폐를 해결해 주어 자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나 폐단을 살피었고 [...] 정사(政事)의 실적이 성하여 한 마을(一省)의 최고였다.”라는 극찬이 적혀있다. 이규현과 조병문의 평가는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다. 실제 그들이 부사로 재직할 당시 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기에 이러한 찬사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¹⁴

이규현과 조병문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기록은 사실에 바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에 재직한 다른 삼척부사들에 대한 『척주선생안』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804년 부임한 심공저의 경우 “글을 좋아하여 권장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자못 실망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1859년 부임한 박황진 부사에 대한 평은 특히 비판적이다. 그에 대해서는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방역전(防役錢)의 사건으로 백성과 아전들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원성이 경향에 미쳤으니 해악한 정사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혹평이 남아 있다. 1861년 부임한 이계창의 경우는 “한갓 착하기만 하여 주변성이 없었다.”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인상이 기록되어 있다.¹⁵

삼척부사에 대한 『척주선생안』의 다양한 평가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14 『陟州先生案』의 한글 번역문은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完譯 陟州集』(강원대학교, 1997), 124-129쪽.

15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1997), 위의 책, 124-129쪽.

석인상을 조성한 부사 이규헌과 석인상을 옮겼을 당시 재직한 부사 조병문은 다른 시기의 부사들에 비해 뛰어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석인상을 만들고 옮긴 직접적인 이유는 충돌하는 기운을 제어하고 삼척읍성으로 향하는 살기를 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삼척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후에 미륵삼불로 불리게 되는 석인상의 제작과 이동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던 삼척부사 이규헌과 조병문의 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이 1857년 현재의 자리에 자리잡게 된 이유는 “마을의 병폐를 해결해 주어 자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나 폐단을 살폈던” 삼척부사 조병문의 행정조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륵삼불을 옮기는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미륵삼불의 이동에 당시의 삼척부사 조병문뿐만 아니라 이 석상을 제작한 이규헌이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2.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성배경과 시기

봉황산 미륵삼불은 1835년부터 1839년까지 삼척부사로 재직한 이규헌에 의해 조성되었다. 봉황산 미륵삼불을 소개하는 안내판이나 시지, 안내책자 등에는 이 미륵삼불이 1835년 조성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는 이규헌이 삼척부사 재임시 조성했다는 기록만 있으며 1835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이규헌이 삼척부사로 재임하였던 1835년에서 1839년의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조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 1. 부사 이규헌. 을미(1835) 7월에 진산(珍山)으로부터 왔다. 성품이 본디

과묵하고 자중하여 자애로 백성을 다스렸다. 병신(1836), 정유년(1837)의 큰 흉년에 유민을 구휼하였는데, 창고의 곡식을 덜었고 부민(富民)을 모아 돈을 많이 마련하여 구휼해주었다. 향교의 위사(位士)를 조사하여 찾아내 校位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향교 건물을 보완했다. [...] 만년제(萬年堤)를 쌓고 봉황대(鳳凰臺)를 세웠다.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石人) 세 개의 상으로써 충돌하는 기운을 막았다. 죽서루 아래에 방수제(防水堤)를 쌓았고, 서각대(犀角臺) 앞에 하마비를 세웠다. [...] 운흥사가 화재를 입어 돈 200냥과 쌀 30섬을 갈라서 중건하고 이름을 신흥사라고 고쳤다. 흑악사의 불우(佛宇)가 오래되어 무너졌기에 돈 100궤미의 재물을 갈라 주어 수리하였다. [...] 공양릉을 추진(楸川)에다 고쳐서 봉하였다. 기해(1839) 12월에 능주목사로 옮겼다.¹⁶

이규헌이 삼척부사로 부임한 시기는 1835년 7월이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835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삼척에 처음 부임한 이규헌이 부임 직후 바로 세 구의 석인상을 만들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규헌이 삼척에 부임하기 직전의 삼척부사는 한치형이었다. 한치형은 1830년 삼척에 부임하였으며 1835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다. 한치형의 재임기간 중인 1834(甲午)년과 1835(乙未)년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린 사람들이 칩을 캐어 목숨을 이을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¹⁷ 이규헌이 삼척부사로 부임한 시기는 흉년이 2년째 연속되어 그 피해가 점점 심해질 때였다. 이규헌이 삼척에 부임할 때 이미 심각했던 흉년 피해는 이규헌 부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사료 1에 따르면 1836(丙申)년과 1837(丁酉)년에도 흉년이 지속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삼척읍지 등에 기록된 18-19세기 흉년 피해 기록 중 2년 연속 흉년이 발생한 사례는 3차례가 있다.¹⁸ 그러나 4년 연속 흉년이 지속된

16 金九燦,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李奎憲, 번역문은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完譯 陟州集』(강원대학교, 1997), 126쪽 참조.

17 金九燦,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韓致迥. “甲午乙未之間年未登餓字相望採葛連命”

기간은 18세기에도 보이지 않으며 19세기의 경우 이규헌이 삼척에 부임한 전후의 기간이 유일하다. 즉 이규헌은 전례없는 흉년이 지속되는 기간 삼척부사에 부임하였던 것이다. 심각한 흉년 피해가 지속되는 시기 삼척에 부임한 이규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료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창고의 곡식을 방출하고 부민(富民)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유민을 구휼하는 일이었다.

이규헌이 삼척에 부임한 시기는 흉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부임한 이규헌이 바로 그 해인 1835년 봉황대에 석인상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 이규헌은 부임 직후 백성 구휼 활동에 전념하였다. 구휼 활동과 세금 면제 등의 구민 정책 이후 이규헌이 한 주목되는 일은 제방을 쌓는 일이었다. 이규헌은 만년제라 불리는 제방을 쌓았는데 이는 장기화되는 흉년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사료 1의 내용을 보면 “만년제를 쌓고 봉황대를 세웠다.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石人) 세 개의 상으로써 충돌하는 기운을 막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만년제를 쌓은 후 건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규헌은 연속되는 흉년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년제를 쌓았다. 이규헌이 삼척에 부임 직후 바로 만년제를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규헌이 삼척 부임 후 지역 현황을 살피고 연속되는 흉년의 원인을 파악한 후 그 대비책으로 조성한 것이 만년제라 할 수 있다. 만년제 조성시기는 1837년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35년 부임한 이규헌이 부임 이듬해인 1936년에도 연이어 흉년을 맞았을 때 그 대응책으로 만년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만년제가 1837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838년에 이르러 계속된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만년제의

18 이홍권, 「18-20세기 초 삼척의 재해와 府使·民의 대응: 『陟州先生案』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13(2017), 121쪽.

건설이 연속적인 흉년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만년제의 조성은 삼척지역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무시 못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38년경에 이르면 백성들을 보살피고 구휼하고자 노력하였던 이규헌의 수고는 지역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 하장면 역둔리에 조성된 역둔리 첩비(鐵碑)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역둔리 첩비는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약 40여 미터 떨어진 비각 안에 있다. 첩비의 전면에는 ‘부사이공규헌홀민청덕영세불망비 도광무술오월일(府使李公奎憲恤民淸德永世不忘碑 道光戊戌五月日)’이라 적혀있다. 이 비는 명문을 통해 1838년(헌종4)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척 역둔리는 지금도 삼척시보다 태백시에 가까운 산간 오지이다. 삼척읍성이 있었던 삼척 시내가 아니라 삼척 읍성에서 멀리 떨어진 역둔리에 첩비가 세워진 것은 부사 이규헌의 구휼 노력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규헌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만년제를 건립하였고 이후 봉황대와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하였다. 만년제 건설은 흉년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대비책이었다. 봉황대에 석인상을 건립한 이유는 자연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 4년 연속 발생하는 흉년과 같은 재앙을 막고자 하는 신앙적 믿음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규헌이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하게 된 환경적 배경은 4년 연속 발생한 흉년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이밖에 인문적 배경은 18-19세기 들어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석장승 제작의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봉황산 미륵삼불 조성 이후에는 죽서루 아래에 방수제를 쌓았으며 화재를 입은 운흥사를 중건하기도 하였다. 사료 1에 등장하는 이규헌의 행적은 부임하였을 때부터 이임할 때까지 시간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현은 1835년 7월에 삼척에 부임하여 1839년 12월에 이임하였다. 이규현은 부임 초기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구휼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삼척부사 재직 시절 후반기는 사찰 중건, 효자와 열녀 누각의 수리에 힘을 쏟았다. 만년제와 봉황산 미륵삼불은 이규현의 삼척부사 재직 중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건립된 만년제 조성 다음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봉황산 미륵삼불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1835년 조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년제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 한다면 봉황산 미륵삼불은 4년간이나 지속되었던 흉년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는 삼척읍민들과 이규현의 신앙적 대응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성은 만년제 조성 이후 연속된 흉년이 끝난 해인 1838년경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Ⅲ. 봉황산 미륵삼불의 양식적 특징과 의미

1. 양식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미

현재 미륵바위 위에 있는 봉황산 미륵삼불은 동쪽의 봉황산을 바라보고 일렬로 늘어서 있다. 미륵삼불의 크기는 동쪽 석상 101cm, 중간 석상 105cm, 서쪽 석상 110cm의 높이이다. 이 미륵삼불은 조성될 당시 불상이 아니라 석인으로 조성되었다.¹⁹ 이러한 이유로 석상의 상호나 복장에서 불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머리는 민머리이며 평면적인 얼굴에 삼각형 모양의

19 金九嫻,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李奎憲, “立鳳凰臺石人三像以御衝氣”



도8-봉황산 미륵삼불 동쪽 석상



도9-봉황산 미륵삼불 동쪽 석상 측면



도10-봉황산 미륵삼불 중간 석상



도11-봉황산 미륵삼불 중간 석상 측면



도12-봉황산 미륵삼불 서쪽 석상



도13-봉황산 미륵삼불 서쪽 석상 측면

코가 튀어나와 있다. 눈과 눈썹 및 입은 굽은 선각으로 간결하면서 힘 있는 인상을 풍기게 조각하였다.

신체는 괴체적으로 만들었으며 결가부좌한 자세로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팔꿈치 주변에 한 줄의 음각선을 표시했으며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옷주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측면에 각이 진 원추 형태의 바위 덩어리를 연상시키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진다.(도8-13)

봉황산 미륵삼불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불상으로 조성된 석상이 아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충돌하는 기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이 미륵삼불의 형태는 단순하며 비보사상이 반영된 석상이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일종의 지진구(地鎮具) 역할을 하는 석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석상은 하체부분에 무게가 가득 실린 형태의 괴체적인 모습으로 조각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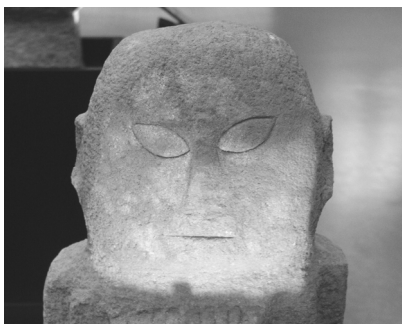
도14-봉황산 미륵삼불 중간 석상 얼굴



도15-봉황산 미륵삼불 동쪽 석상 얼굴



도16-제주도 동자석



도17-수호신 동자석(서귀포시 보성리)



도18-강진 다산초당 인근 윤종진
(1803-1879) 무덤 앞 석상



도19-괴산 능촌리 석장승²⁰

2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도난문화재백서』(1999), 사진 전제.

봉황산 미륵삼불은 지진(地鎭) 역할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석상의 양식적 특징을 다른 석조불상과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좌상 형태의 단순한 신체는 옷주름마저 표현되어 있지 않아 괴체적이라는 특징 이외에 특별한 양식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안면 표현에서는 18-19세기 유행한 무덤 앞 석인상의 얼굴 표현과 유사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본래 불상이 아니라 석인상으로 제작되었기에 머리에는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육계가 없으며 민머리이다. 평평한 얼굴에 선각으로 타원형의 눈을 새겼으며 그 위의 눈썹 역시 한 줄의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상대적으로 크게 만든 코는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다.(도14, 15) 얼굴 표현만을 놓고 본다면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조각은 평평한 얼굴에 선각으로 눈과 눈썹을 새기고 삼각형 코가 돌출된 제주도 동자석을 들 수 있다.(도16, 17)

제주도 동자석은 16세기 육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이후 제주 묘제에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 동자석은 17세기부터 조성되었으나 편년이 정확한 207개의 동자석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동자석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²¹ 제주도 동자석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거나 지물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얼굴의 경우는 민머리에 평평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귀를 큼직하게 표현하였다.

제주도 동자석은 선각으로 그린 눈과 눈썹 표현 및 평평한 얼굴에서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돌출된 코 형태가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의 얼굴과 매우 유사하다.(도16, 17)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은 1838년경 조성된 19세기 석인상이다. 삼척에 있는 석인상의 얼굴에서 제주도 동자석의 모습이 간취

21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60쪽.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석조불상 및 석인상의 미술사적 흐름과 이규헌의 행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을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남아있는 석조불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15세기까지 조선의 불교문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명문이나 기록이 있는 조선 전기 석조불상들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 석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명문이 있는 석조불상은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1412년, 태종 12)이다. 조성시기 파악이 가능한 조선 전기 석조불상 중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은 서울 상운사 석불좌상(1497, 연산군 3)이다. 이 두 불상 이외에 명문이 있는 불상은 8곳의 불상이 있다.²² 명문이 있는 불상 중 가장 많은 수가 성화(成化) 연간(1465-1487)에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석조불상 또한 전부 15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명문이 있는 조선전기 불상들이 15세기에 집중된 이유는 고려시대 승불의 전통이 15세기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²³

조선은 승유억불을 국시로 내건 국가였지만 건국 직후부터 15세기 내내 불상이 조성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 말년 이후 15세기 후반기부터는 왕실과 대중들 사이에 불교가 다시 흥기하였다.²⁴ 특히 세조대에 들어와 불교가 다시 크게 흥성하였던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다시 흥기하였던 불교는 성종대까지는 폐불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성종대에는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세조대에 입안된 도승법과 양종, 승과 등의 규정이 법제화되었고 양종과 승과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연산군대에 들어와 승과가 폐지

22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2017), 195쪽.

23 정성권(2017), 위의 논문, 194-295쪽.

24 한기선, 「조선조 세종의 抑佛과 信佛에 대한 연구」, 『홍익사학』 3(1986), 3-61쪽.

되는(1504) 등 실질적인 폐불 정책이 단행되었다. 중종대에는 『경국대전』에서 도승조(度僧條)가 삭제되면서(1516) 법제적 폐불 조치가 단행되기에 이르렀다.²⁵ 16세기에는 승려의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활동과 인적 재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폐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연산군 이후 쇠퇴한 조선의 불교는 임진왜란 이후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복구과정을 통해 많은 사찰이 중창되고 불상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상은 소조나 목조로 만들어졌으며 석조불상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석조불상의 숫자이다. 조선전기의 경우 15세기 조성된 명문이 있는 불상이 10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후기 명문이 있는 불상은 1736년(영조 39) 조성된 기록이 있는 삼막사 치성광마애삼존불 정도가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불교는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으나 석조불상을 조성하는 전통은 이미 쇠퇴하여 있었다. 삼국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지속되었던 석조불상 제작 전통은 15세기까지 유지되었으나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약해진 것이다. 석조불상 제작 전통은 16세기에 들어서며 쇠퇴하였으나 다른 분야에서 석조미술의 유행은 15세기 무렵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앞 시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유행한 석조미술은 무덤 앞에 놓이는 석인상 조각이다. 조선 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무덤 앞 석인상 제작의 흐름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무덤 앞의 석인상 조각 이외에 18세기 들어와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석장승의 제작 역시 크게 유행하였다. 한반도 남부의 석장승 중 조성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영암 도갑사의 석장승(1717), 나주 불회사

25 김용태, 「조선전기 역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10-11쪽.

석장승(1719), 나주 운흥사 석장승(1719), 남원 실상사 석장승(1725) 등을 들 수 있다.²⁶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을 통해 보았을 때 석장승은 18세기 들어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병자 양란 이후 향촌사회의 변화, 즉 농법의 발달, 농기구의 개량, 지주제 경영방식, 인구의 증가 등으로 생산력이 증가되고 경제적 부를 갖춘 새로운 세력을 낳게 됨과 동시에 하층민으로서 생산에 참여하는 민의 의식도 향상되면서 이른바 조선 후기의 서민·민중 문화가 성장해간 것을 반증해 준다. 그 결실은 숙종 연간을 거쳐 18세기 영·정조대를 지나 19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것으로 해석된다.²⁷

18세기 전반기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석장승은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돌하르방은 제주도 북쪽 제주시내와 제주도 서남쪽 대정읍 인성리 일대 및 제주도 동남쪽 표선면 성읍리(정의현) 일대에 위치해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대정·정의 삼주현성(三州縣城) 성문 앞에 놓여 있었던 석인상이다.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돌하르방은 47기가 남아있다.²⁸ 제주시 내에 21기, 대정에 12기, 성읍에 12기의 돌하르방이 있으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앞에도 제주시내에서 옮겨온 2기의 돌하르방이 있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제주읍성 성문 앞에 있었던 제주시 돌하르방의 경우 제주목사 김몽규가 1754년 돌하르방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석익(1885-1956)이 1918년 간행한 편년체 역사서인 『탐라기년』에는 “청건륭십구년(淸乾隆十九年, 1754)에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웅중석(翁仲石)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

26 유홍준·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열화당, 1988), 160-161쪽.

27 유홍준·이태호, 「조선 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학고재, 1997), 83쪽.

28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文化人類學』 5(1972), 36-38쪽.

다.²⁹ 제주시 돌하르방은 제주읍성의 문 앞에 4기씩 짝을 이룬 돌하르방이 각 문마다 두 세트씩 도합 8기, 총 24기가 동·서·남문 각 문마다 세워졌었다.³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주시 돌하르방을 건립한 인물이 제주목사라는 점이다. 이는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한 인물이 삼척부사라는 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돌하르방은 성문 앞을 지키며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수호신적 기능과 더불어 금표(禁標), 경계표지 기능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돌하르방의 수호신적 기능과 봉황산 미륵삼불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기능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인 목사 김몽규가 ‘웅중석’을 건립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삼척부사 이규헌이 1838년경 석상을 세우기 이미 80여 년 전에 제주목사 김몽규는 제주읍성 문밖에 석상을 세웠다.

읍성 앞에 석상을 세우는 전통은 크게 유행하지 않았으나 조선전기부터 존재했다. 제주도의 또 다른 읍성인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에도 제주읍성보다 먼저 돌하르방이 세워져 있었다. 대정현성은 1416년(태종 16)에 대정현이 설치된 이후 현감 유신(兪信)이 1418년(태종 18)에 현재의 자리에 수축하였다.³² 정의현성이 현재의 자리에 축성된 것은 1423년(세종 5)이다.³³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성문 앞에는 두 성이 축성된 직후 돌하르방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제주읍성의 경우 제주목사 김몽규에 의해 1754년에 돌하르방이 세워지기 이전 읍성의 동쪽과 서쪽에 세워진 복신미륵이 읍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읍성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서로 마주보았

29 金錫翼, 『탐라기년』(瀛洲書館, 1918). “甲戌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奎設翁仲石於城門外”

30 현존하는 돌하르방은 23기이다.

31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2015), 206쪽.

32 李元鎮, 『耽羅志』 大靜縣 城郭條.

33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城郭條.

34 정성권(2015), 앞의 논문, 218-219쪽.

던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는 15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³⁵ 읍성의 주변에 석상을 세우는 전통은 조선 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대정현 성과 정의현성의 성문 밖에 석상(돌하르방)을 세운 것이 1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산 해미읍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미읍성은 1421년(세종 3)경 병영성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해미읍성의 주변에는 4기의 석불입상이 세워져 있다. 내포사람들에게 이 석불입상은 해미읍성을 보호하는 미륵으로 알려져 있다. 석불입상은 해미읍성 동쪽 530m 지점에 황락리 미륵이 있으며 서남쪽 750m 지점에는 조산리 미륵이 있다. 해미읍성의 성벽에서 동남쪽 2.6km 지점에는 산수리 미륵이 있다.³⁷ 해미읍성에서 서북쪽 900m 지점에는 반양리 미륵불이 현재 미륵사 용화전 내에 봉안되어 있다. 해미읍성 주변의 석불입상들은 황락리 미륵과 산수리 미륵의 경우 조형적 유사성이 보이나 반양리 미륵과 조산리 미륵의 경우 양식적으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미읍성 주변 4구의 미륵이 처음부터 동시에 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4구의 불상이 모두 조선 전기의 석불로 추정되며 황락리 미륵과 산수리 미륵의 경우 양식적으로 닮은 두 불상이 다른 장소에 만들어진 것은 주목된다. 아마도 조성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반양리 미륵이 건립되었을 당시에는 읍성을 보호한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황락리 미륵과 산수리 미륵이 석불이 없는 해미읍성의 동쪽과 동남쪽에 조성되었다는 점은 해미읍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보의 성격이 황락리, 산수리 미륵을 건립할 당시에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전기 해미읍성 주변에는 앞서 언급한 비보 성격을 갖는 석불입상이

35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2017), 198-199쪽.

36 임선빈,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 담론』 58(2011), 80쪽.

37 산수리 석불입상은 1982년 불법반출되었다.

조성되었다. 제주도 대정현성, 정의현성의 성문 앞에도 15세기 전반기에 성을 보호하는 석상(돌하르방)이 건립되었다. 15세기 후반경 제주읍성에는 읍성을 가운데 두고 복신미륵이 서로 마주보고 서있게 만들어졌다. 이후 제주읍성에는 1754년 목사 김몽규가 ‘웅중석(돌하르방)’을 세워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1754년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세운 장인들은 1754년 관덕정을 건립한 육지의 장인들로 알려져 있다. 김몽규는 중앙정부에서 부임해 내려온 관리로서 제주 출신이 아니다. 『증보 탐라지』에서 알 수 있듯이 김몽규는 돌하르방을 건립한 1754년에 관덕정을 중창하였다.³⁸ 제주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형 건축물인 관덕정을 중창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많은 장인들이 제주도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1754년에 건립된 돌하르방이 한반도 남단의 석장승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는 김몽규에 의해 관덕정이 중창될 때 참여했던 육지 출신 장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⁹

1754년 관덕정의 건립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건립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육지에 건립된 석장승은 제주도 돌하르방에 조형적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역의 교류는 석장승과 돌하르방뿐만 아니라 동자석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 동자석의 안면 표현과 유사한 강진 다산초당 인근 윤종진(1803-1879) 무덤 앞 석상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도18) 석장승과 동자석 등은 18세기 이후 조성되는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괴산 능촌리 석장승은 남해안 일대에 주로 분포한 석장승이 내륙 일대에도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도19)

18-19세기 전국적으로 확산된 석장승과 동자석은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

38 淡水契 編, 『增補 耽羅誌』, 名勝古蹟 條.

39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2015), 210쪽.



도20-무안 총지사지 석장승1 도21-무안 총지사지 석장승2 도22-정읍 오봉리 석장승

의 조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의 얼굴에는 18-19세기 유행하였던 동자석의 얼굴이 반영되었다. 봉황산 미륵삼불의 괴체적인 신체는 무안 총지사지 석장승이나 정읍 오봉리 석장승 같이 입상형태가 아닌 괴량감 넘치는 덩어리 같은 신체를 갖춘 석장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도20-22)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은 조선전기부터 등장하는 성읍을 지키는 비보 개념의 석불 및 석인상 제작 전통이 19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삼주현성과 해미읍성 등과 같이 해안가의 읍성과 관련 있는 석불 및 석인상 제작 전통이 역시 해안가에 있는 삼척읍성과 연관되어 19세기 삼척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부지방에서 주로 유행하였던 석장승과 동자석의 양식적 특징이 어떻게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형에 영향을 미쳤을까. 조형성의 상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규현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규헌의 행적과 봉황산 미륵삼불의 이전 배경

『척주선생안』에 따르면 이규헌은 1835년부터 1839년까지 삼척부사에 재직하였다.⁴⁰ 삼척부사에 부임하기 이전 이규헌의 행적은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이규헌의 주요 행적을 살펴 보면, 이규헌은 1818년(순조 18)에 옥과현감을 지냈으며⁴¹ 1820년(순조 20)에는 임피현령을 지냈다.⁴² 1832년(순조 32)에는 진산군수를 역임하였다.⁴³ 진산군수 재직 이후에는 1835년 7월에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1839년 12월까지 머물렀다. 삼척부사 이후 이규헌은 1840년 지금의 전남 화순 지역인 능주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규헌이 삼척부사로 오기 이전 부임하였던 곳은 옥과와 임피, 진산 등이다. 옥과는 현재의 전라남도 곡성, 임피는 전라북도 군산, 진산은 충청남도 금산 지역이다.

이규헌이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의 관리로 부임하였던 경험은 삼척부사 재임이후 봉황산 미륵삼불을 조성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규헌은 해미읍성을 비보하는 미륵불의 존재와 남해안 일대 유명한 사찰 앞에 세워졌던 석장승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료 1에서 확인되듯이 이규헌의 경우 삼척부사 재직시절 불타거나 낡은 사찰을 중건하는데 직접적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규헌은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불교에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유교국가 조선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불탄 사찰과 낡은 당우를 중창하는 이규헌이라면 그가 부임했던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사찰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이규헌은 18세기

40 金九嫻, 『陟州先生案』, 眞珠府先生案條 李奎憲.

41 『承政院日記』 108책, 순조18년 5월 16일 癸丑. “玉果縣監李奎憲”

42 『承政院日記』 110책, 순조20년 6월 24일 戊申. “李奎憲爲臨坡縣令”

43 『承政院日記』 115책, 순조32년 5월 10일 丙辰. “李奎憲爲珍山郡守”

사찰 앞에 주로 세워졌던 석장승뿐만 아니라 무안 총지사지 석장승(도20, 21), 정읍 오봉리 석장승(도22) 등과 같은 괴체적인 석장승을 비롯하여 괴산 능촌리 석장승(도19)과 같은 내륙 지역 석장승의 존재 역시 충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강진 다산초당 인근 윤종진 무덤 앞 석상(도18)과 같이 남부지역에 분포하였던 제주도 동자석과 유사한 형태의 동자석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의 모습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석장승과 동자석의 조형적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규헌이 삼척부사로 이임하기 이전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관리로 재직하였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857년 봉황대에서 현재의 미륵바위로 이전되었다. 미륵삼불이 봉황대에서 미륵바위로 옮겨진 이유 역시 이규헌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헌에 대한 1857년의 기록은 봉황산 미륵삼불이 봉황대에서 미륵바위로 옮기게 된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규헌은 삼척부사에서 이임한 이후 능주목사, 여주목사를 거쳐 1857년 삼척영장(三陟營將)으로 부임하였다.⁴⁴ 이규헌이 삼척에 다시 오게 된 것이다.

삼척영장은 1672년(현종 13년) 강원도에 신설되었고, 강원도에 파견된 유일한 영장이었다. 삼척영장은 육군 군사지휘관으로서 평상시에는 영동 지방 9개 읍 육군의 훈련과 점검을 담당하였고, 유사시에는 군병을 지휘하여 외적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삼척영장은 1673년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여 도적의 체포 등 치안유지를 담당하였고,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도 겸임하여 울릉도 수토(搜討) 등 바다 방어의 임무도 수행하였다.⁴⁵

44 『承政院日記』 124책, 철종8년 6월 26일 乙亥. “李奎憲爲三陟營將”

45 서태원, 「조선후기 三陟營將 연구」, 『이사부와 동해』 13(2017), 73쪽.



도23-삼척부지도, 1872(고종 9)

삼척영장의 근무처소는 삼척포진성이다. 삼척포진성은 조선후기 삼척 고지도에서 삼척읍성과 더불어 삼척포진성을 확인할 수 있다.(도23) 삼척포진성은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 일대에 위치하였다. 고지도의 그림에 따르면 삼척포진성은 육향산을 성벽의 일부로 삼았는데 서쪽에는 봉황산이 길게 그려져 있다. (도23)의 고지도에 따르면 삼척읍성과 삼척포진성 사이에는 오십천이 U자형으로 휘돌고 있으며 삼척포진성 서쪽으로 봉황산이 있는 모습은 지금의 지형과 유사한 형태이다. 삼척포진성은 삼척포성이라고도 불리우며 1520(중종 15)년에 축조되었다. 오십천 하구 일대의 자연적인 포구가 삼척포 수군의 기항지로 사용되다가 중종대에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삼척포진성이 근무지였던 삼척영장은 영동지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일

46 유재춘, 「삼척 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와 동해』 2(2010), 44쪽.

뿐만 아니라 토포사로서 도적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였다. 1673년 우의정 김수홍이 영동에 도적이 많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자 현종이 삼남의 예에 따라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토포사의 임무도 겸임하도록 한 것이다.⁴⁷ 삼척영장은 현종대부터 영장제도가 폐지되는 고종대까지 계속 삼척에 있었다. 따라서 토포사를 겸임한 영장의 근무지를 도적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옮겨 치도(治盜)의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고, 도적 체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삼척영장에게 상벌을 줌으로써 도적 체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삼척영장은 벌을 피하고 상을 받기 위해 도적 체포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여 종종 곤장을 견디지 못한 양민(良民)이 억울하게 도적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죽은 경우까지 발생하였다.⁴⁸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삼척에 전해 내려오는 봉황산 미륵삼불의 구전과 관련된 것이 있어 주목된다. 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륵삼불이 놓인 봉황산 뒤편은 조선시대 동해안의 해상방위를 총괄했던 삼척포진(三陟浦鎭)이 있었고, 삼척포진의 배후 언덕에 사형장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 동해안 수군의 죄수들은 모두 삼척으로 압송되어 재판과 함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사형당한 죄수들의 사악한 영혼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읍내의 온갖 재앙을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1835년 삼척부사 이규현은 읍내로 내려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 미륵불 3기를 읍내와 가까운 지점에 안치시키고 봉황산 정상을 바라보게 했다. 그 후부터 읍내의 재앙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었다”는 내용이다.⁴⁹

47 서태원(2017), 앞의 논문, 81쪽.

48 서태원(2017), 앞의 논문, 94-95쪽.

49 봉황산 미륵삼불과 삼척포진에 대한 구전된 위의 내용은 시지나 읍지 등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에 인용한 내용은 봉황산 미륵삼불 안내판의 내용이다.

삼척에 전해 내려오는 이와 같은 구비전승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삼척영장의 형살(刑殺)이 너무 지나쳐 해당 영장의 파직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래의 사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2. 삼척영장 전운상은 도둑을 다스릴 때에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형살(刑殺)이 너무 지나쳤으며, 기타 불법을 범한 정상은 날날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청컨대 전운상을 파직하소서.⁵⁰

사료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삼척영장 전운상의 파직이 논의된 시점은 1731년(영조 7)이다. 전운상의 파직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병영성이었던 삼척포진성 내에서 많은 형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형살이 시행된 곳이 삼척포진성의 어느 지점인지는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병영성으로 사용되었던 해미읍성의 사례로 보았을 때 죄수의 사형 집행은 옥중이나 옥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¹ 해미읍성은 성 중앙부근에 옥사가 있었으며 이 옥사는 2003년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⁵² 병영성이었던 해미읍성의 사례로 볼 때 삼척포진성 내에도 옥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옥사에서 많은 형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척영장은 강원도내의 유일한 영장이다. 삼척영장은 육군 최고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토포사와 수군첨절제사를 겸임하였다. 영동지역의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관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1835년에서 1839년 동안 삼척부사를 역임한 이규헌이 1857년 삼척영장으로 부임하였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삼척부사 이규헌이 1838년경 조성한 석상이다. 그런데 공교롭

50 『英祖實錄』 권29, 영조7년 2월 21일 甲寅.

51 해미읍성 사형집행 장소에 관해서는 차기진,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4(2007), 140-44쪽 참조.

5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해미읍성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9), 52쪽.

게도 이규헌이 삼척영장으로 부임한 1857년 미륵삼불은 현재의 미륵바위로 옮겨지게 된다.⁵³ 1857년 당시의 삼척부사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병문이었다. 봉황산 미륵삼불을 미륵바위로 옮기는 일은 읍사(邑事)와 관계된 것이기에 조병문이 주도하에 시행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삼척부사 시절 봉황산 미륵삼불을 직접 만든 당사자인 이규헌이라면 미륵삼불의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형당한 죄수들의 영혼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다”는 구비전승의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삼척영장으로 부임한 이규헌은 봉황산 동쪽에 위치한 삼척포진성 내에서 형살당한 사람들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끼리의 코처럼 삼척읍성을 향해 뻗은 미륵바위는 삼척읍성 내에서 보았을 때도 읍성을 향해 강하게 찌르는 형세이다. 코끼리의 코가 삼척읍성을 찌르는 형세라면 봉황산 동쪽에 위치한 삼척포진성은 코끼리의 엉덩이 부근에 해당한다. 삼척포진성 내에서 형살로 인해 나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삼척영장 이규헌은 이를 막고자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 대책이 바로 봉황산 봉황대에 있었던 미륵삼불을 코끼리의 코처럼 생긴 미륵바위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규헌은 1857년 삼척읍성을 찌르는 코끼리 코 모양의 바위 위에 육중한 미륵삼불을 옮겨 놓음으로써 악한 기운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삼척포진성에 관한 구비전승이 남겨진 이유는 결국 이규헌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53 金宗彦 『陟州誌』 권1, 府內條, “李侯奎憲爲三石人立于虎岳之上 今上(哲宗) 丁巳(1857) 邑人移其南 以鎮邑基殺氣”

IV. 맺음말

삼척읍성 동쪽 성벽자리에서 동쪽으로 600m 떨어진 곳에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이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이 있는 곳은 봉황산의 서쪽 끝자락이 튀어나온 곳이다. 이 장소는 오십천의 침식작용으로 가파른 절벽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십천의 수로 변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은 주택가와 공원으로 변하였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그동안 1835년 삼척부사 이규현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규현 부임 전후의 상황을 살피고 기록에 남겨진 이규현의 행적을 분석하였다. 이규현이 삼척부사로 부임하기 직전 은 흥년이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시점이었다. 이규현 부임 이후에도 흥년은 2년간 더 지속되었다. 4년 연속의 흥년은 18-19세기 삼척의 역사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자연재해였다. 보기 드문 자연재해 와중에 이규현이 삼척부사로 부임하였다. 사료분석과 흥년이 끝난 시점, 흥년에 대한 대책인 만년제의 건설 다음에 봉황대를 조성한 후 석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성시기는 1838년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규현이 삼척부사시절 3구의 석인상을 만든 직접적인 이유는 4년간 연속된 흥년에서 찾을 수 있다. 보기 드문 대재앙인 흥년에 대한 대책으로 이규현은 만년제를 건설하고 방수제를 만드는 등 치수사업에 힘썼다. 이규현은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흥년에 대한 치수 대책과 더불어 봉황산에 봉황대를 쌓고 석상 3구를 만들어 충돌하는 기운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는 실용적인 대책과 병행된 의례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규현은 실무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읍민들의 마음도 위무할 줄 아는 노련한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형적 특징은 평평한 얼굴에 삼각형의 돌출된 코를 갖고 있으며 신체는 괴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평한 얼굴에 돌출된 삼각형 코는 18-19세기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동자석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다. 괴체적인 신체 역시 18-19세기 남부지방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석장승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다. 서남해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던 얼굴이 평평한 동자석과 석장승의 양식적 특징이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에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본문에서는 봉황산 미륵삼불을 만든 이규헌의 행적이 이러한 영향관계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추정하였다.

이규헌은 1835년 삼척부사로 부임하기 이전 1818년 지금의 전남 곡성지역인 옥과현감을 지냈다. 1820년에는 군산지역에 해당하는 임피현령을 역임하였으며 1832년에는 진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진산은 지금의 금산지역이다. 이규헌은 불교에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이규헌이 부임한 전라도지역의 유명한 사찰에는 18세기부터 사찰 앞에 석장승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19세기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또한 전남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제주도 동자석과 유사한 형태의 동자석이 만들어졌다. 삼척부사에 부임하기 이전 이규헌이 경험한 남부지역 지방관 경험은 그가 1838년경 조성한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857년 봉황대에서 현재의 장소인 미륵바위로 옮겨졌다. 미륵삼불이 1857년 이동된 이유는 삼척영장으로 부임한 이규헌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그 근거로는 봉황산 뒤편의 삼척포진성에서 사형된 사형수의 살기를 막기 위해 미륵삼불의 위치를 이동했다는 구비전승을 살펴보았다. 삼척포진성에서 벌어진 형살에 의한 살기가 봉황산을 타고 삼척읍성을 찌를 것이라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의 삼척 영장이었던 이규현일 가능성이 높다.

성읍 주변에 석불이나 석상을 세워 성읍을 진호하는 전통은 15세기 해미읍성, 대정현성, 정의현성 등 해안가의 읍성에서 처음 나타난 전통이다. 이 전통은 15세기 복신미륵의 건립과 더불어 제주읍성에서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8세기 전반기 석장승을 사찰 앞에 세워 사찰을 호위하는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1754년, 제주목사 김몽규가 제주읍성 앞에 웅중석을 세워 읍성 주변에 석상을 세우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삼척읍성 밖에도 삼척부사 이규현이 1838년경 석상을 세웠다. 이규현이 만든 석상은 후대에 미륵삼불로 불리게 된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5세기 해안가 읍성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19세 삼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은 조선시대 들어와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 19세기에도 계승되고 있다는 점과 석상이 만들어진 배경 및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 耽羅誌』, 『英祖實錄』, 『眞珠誌』, 『陟州誌』, 『陟州先生案』, 『耽羅紀年』, 『耽羅志』.

2. 단행본 및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三陟都護府 官衙 遺蹟』. 2015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完譯 陟州集』. 1997.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도난문화재백서』. 1999.

삼척군, 『삼척군지』. 1984

삼척시, 『삼척시지』. 1997.

삼척시립박물관, 『고요한 아침의 땅 삼척』. 2015.

_____, 『삼척문화 바로알기』. 2018.

정성권, 『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15.

_____, 『고려와 조선 석조문화재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2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해미읍성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9.

3. 논문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文化人類學』 5, 1972, 33-47쪽.

김용태, 「조선전기 역물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5-33쪽.

서태원, 「조선후기 三陟營將 연구」. 『이사부와 동해』 13, 2017, 71-112쪽.

유재춘, 「삼척 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와 동해』 2, 2010, 7-54쪽.

유홍준·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160-161쪽.
_____, 「조선 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83쪽.

이흥권, 「18-20세기 초 삼척의 재해와 府使·民의 대응: 『陟州先生案』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13, 2017, 113-139쪽.

임선빈,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 담론』 58, 2011, 73-104쪽.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 2015, 205-242쪽.

_____,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2017, 175-217쪽.

차기진,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4, 2007, 119-152쪽.

한기선, 「조선조 세종의 抑佛과 信佛에 대한 연구」. 『홍익사학』 3, 1986, 3-61쪽.

국문초록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은 봉황산에서 서쪽으로 삼척읍성의 동문을 향하고 돌출된 바위 위에 있다. 삼척읍성과 봉황산 미륵삼불의 거리는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오십천의 물줄기가 이 사이를 지나갔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그동안 삼척부사 이규현이 1835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규현 부임 전후의 상황을 살피고 기록에 남겨진 이규현의 행적을 분석하여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성시기를 1838년경으로 추정하였다. 조성배경은 유례 없는 흉년으로 피폐해진 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삼척부사 이규현이 종교적이며 의례적인 대책으로 석상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봉황산 미륵삼불의 양식적 특징은 괴체적인 신체에 평면적인 얼굴에서 삼각형코가 돌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얼굴은 18-19세기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동자석에서 찾을 수 있다. 괴체적인 신체 역시 18-19세기 남부지방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석장승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주도 등에서 나타나는 석상의 양식적 특징이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에서 보이는 이유는 미륵삼불을 조성한 이규현의 행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규현은 1835년 삼척부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지금의 전남 곡성, 전북 군산, 전북 금산 지역 등에서 관리로 근무하였다. 현존하는 사료에 의하면 이규현은 삼척부사시절 사찰을 중건하고 건축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는 불교에 우호적인 인물이었기에 삼척부사에 근무하기 이전 머물렀던 지역에서도 사찰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규현이 부임한 전라도지역의 유명한 사찰에는 18세기부터 사찰 앞에 석장승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19세기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또한 전남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제주도 동자석과 유사한 형태의 동자석이 만들어졌다. 삼척부사에 부임하기 이전 이규현이 경험한

남부지역 지방관 경험은 그가 1838년경 조성한 봉황산 미륵삼불의 조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857년 봉황대에서 현재의 장소인 미륵바위로 옮겨졌다. 미륵삼불이 1857년 이동된 이유는 삼척영장으로 부임한 이규현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성읍 주변에 석불이나 석상을 세워 성읍을 진호하는 전통은 15세기 해미읍성, 대정현성, 정의현성 등 해안가의 읍성에서 처음 나타난 전통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1754년, 제주목사 김몽규가 제주읍성 앞에 웅중석을 세워 읍성 주변에 석상을 세우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삼척읍성 밖에도 삼척부사 이규현이 1838년경 석상을 세웠다. 이규현이 만든 석상은 후대에 미륵삼불로 불리게 된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5세기 해안가 읍성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19세 삼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투고일 2021. 6. 21.

심사일 2021. 6. 21.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삼척(Samchek), 석상(Stone Statue), 미륵불(Maitreya), 19세기 조선사회(Jo seon Dynasty in th 19th Centuries), 읍성(Town Castle), 이규현(Lee Gyu-Heon)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ree Maitreya Buddhas' in Mt. Bonghwang, Samcheok Jeong, Seong-kwon

Three Maitreya Buddhas are located on the western rock of Bonghwangsan Mountain in Samcheok. This Maitreya Buddha sits on a rock protruding toward the east gate. The distance between Samcheok-eupseong and Bonghwangsan Mireukbul is about 600m. Fifty thousand flows between them. Bonghwangsan Maitreya was known to have been built in 1835 by Samcheok Bussa Lee Gyu-heon. In this thesis, historical records before and after the appointment of Kyu-Heon Lee were analyzed. When Lee Kyu-heon took office as a Samcheok official, a very serious famine continued.

In this paper, by analyzing historical records, it was found that Lee Gyu-heon made three Maitreya in 1838. The reason Lee Kyu-heon created the three Maitreya is to comfort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famine.

The face of Maitreya of Mt. Bonghwang is flat, with a protruding triangular nose. The reason why stone statues that were popular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ppear in Samcheok, Gangwon-do is related to Lee Kyu-heon. Before coming to Samcheok as an official in 1835, Lee Gyu-heon managed i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e was friendly to Buddhism. At that time, a stone totem was erected in front of the temple. Lee Kyu-heon was well aware of the stone totems of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ason why the three Maitreya Buddhas on Bonghwangsan Mountain in Samcheok have many similarities to the stone totems of the southern region is closely related to Lee Gyu-heon.

Bonghwangsan Maitreya Buddha was moved from the top of Bonghwangsan Mountain to the present site, Maitreya Rock, in 1857. The reason why the three Maitreya in Samcheok was moved in 1857 was because of Lee Gyu-heon, who was appointed general in Samcheok.

The tradition of erecting stone Buddha or stone statues around a village after making it into a fortress bega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5th century. Bonghwangsan Maitreya Buddha was built to protect the

fortress of Samcheok Villa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raditions created in the 15th century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19th century.

